

지식인을 향해 던지는 진지한 질문, 왜?

로저 사투의 《금지된 지식》을 읽고

방현석 · 소설가

70년대 전반일 것이다 — 아도르노, 벤야민, 마르쿠제 등의 이름을 가르쳐주었으며, 비교적 초창기에 나는 나도 잘 모르는 처지에 이 대학 저 대학의 대학원 코스에서 이들을 소개하였다. 그 한 결과일까.

내게서 배운 문병호군과 김영욱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독일대학에서 아도르노와 벤야민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으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는 이들로부터 다시 이들 이론가들에 관해 배우고 있는 형편인데 감개무량하다.

바라건대 언젠가는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독일비평사 한권쯤 내 손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다. 이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예감과 통찰력에 나 자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언제나 이들 수준에 이를 것인지 아득한 동경에 빠진다.

독일문학관에 갓 신입생이 된 지 36년이 흘렀다. 그러나 정작 독일문학의 맛에 매료되기 시작한 지는 20년 남짓이나 될까. 세권의 연구서를 갖고 있으나 어설픈 책이 없다. 나 자신의 책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찻집같은 작품들의 언덕과 고비를 무슨 힘으로 넘을 것인지 창연하기만 하구나. ❖

오래 일기를 쓰지 않고 살아왔다. 언제부터 일기를 쓰지 않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몹시 일기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80년대, 울분과 격정, 갈등과 좌절이 날마다 교차하였던 나의 20대 중반은 거의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삼십대 중반, 다시 공책을 마련하고 일기쓰기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단 두 장을 넘기지 못하였다.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되짚어보는 최소의 성실성도 상실한, 게으름이 문제다.

하기야 일기 따위는 대수롭지도 않다. 신문과 방송은 컴퓨터를 모르면 금방 도태라도 될 것처럼 몰아붙이며 감당불능의 대량 정보를 매일 생산해낸다. 허겁지겁 쫓아가며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이미 지난 것을 되짚어보며 일기나 쓴다는 것은 한심한 낭비, 낙오자가 되기로 작정한 짓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떠밀리듯이, 살펴보고 생각하며 돌아볼 틈도 없이 우리의 삶이 바쁘게 다가가고 있는 곳은 정녕 어디인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바둥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한은 무한정이 아니다.

로저 사투는 묻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탐구는 맹목적이지 않은가. 목적지도 성찰도 없이 가속도에 내

로저 사투는 묻는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맹목적이지 않은가. 목적지도 없이 가속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금지된 지식》(조한욱 옮김, 금호문화)에서 로저 사투가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만들어내는 지식인, 특히 철학자나 문학인·과학자의 책임성의 문제이며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만든 맨해튼 계획의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트루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루만을 격노시켰다.

“대통령 각하, 내 손은 피로 물들었소.”

그 한마디는 자신이 만든 원폭에 의한 가공할 민간인 살상의 결과를 목격한 과학자의 고뇌가 응축된 것이었다. 오펜하이머는 결국 원폭보다 천배나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고 ‘보안상의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수소폭탄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미국의 원자력에너지위원회 고문직에서 해임되었다.

1961년, 지나가는 승용차와 트럭에 탄 사람들로부터 침과 맥주깡통 세례를 받으면서도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행진에 끝까지 참여하였던 로저 사투는 오펜하이머를 “존경받는 물리학자이자 수백명의 과학자들에게 추앙받는 조직지휘자, 기술자, 군사요원인 동시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고통받는 철학자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로저 사투는 사디즘의 어원이 된 사드 후작의



방현석씨.

악마적 소설의 본질과, 사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떠받드는 비평가들을 예리하고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다.

사드는 1777년에 ‘동성과 이성 모두와의 항문성교, 다양한 종류의 채찍질과 창녀에 대한 칼질, 십자가 위에서 자위, 어린 소녀들과의 퇴폐행위, 살해위협’ 혐의로 체포 투옥된 범죄자이자 ‘살인과 폭력적 성교를 포함한 범죄’를 옹호한 ‘폭력 외설작가’의 두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소설들은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스럽기까지 할 지경인 ‘사드’를, 온갖 교설로 복권시키고 프랑스의 명성있는 문학선집의 반열에 올려놓은 비평가들을 향해 ‘칼을 든 강한 사람 뒤에는 숨을 든 약한 사람이 따른다’는 경구를 상기시켰다. 성찰이 결여된 맹목적 지식과 과학, 예술은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친다는 사실을 《금지된 지식》은 완곡하지만 준엄하게 논증하고 있다.

덜 가더라도 어디를 향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짚어보면서 가야겠다는 것이 사투를 읽는 동안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휩쓸려 정신없이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가하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일이 아닐까. 일기를 다시 써야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진다. 일기를 쓰는 일에도 결심이 필요하다니, 한심하여라. 나여. ❖

금호문화/A5신/각 310면 내외/각 9000원 내외

